

지금, 더 많은 기부금이 필요한 분야는?

한국 비영리 리더 30인 메시지

2026년, 더 많은 기부금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더버터는 한국의 비영리 리더 30인에게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사회 문제와 그 이유를 물었다.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위기의 얼굴들,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더 깊어질 격차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응답에 담겼다.

정리=김시원·문일호·최지은·박선하 더버터 기자

1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돌봄 사각지대는 디지털 환경 변화, 가족 구조 다변화, 양극화 심화로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한부모·조손가족과 다문화·위기 청소년은 기존 제도에 포착되지 않거나 단편 지원에 그치기 쉽다. 아동기부터 자립까지 있는 장기 지원이 미래 투자다.

2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대표

기후재난은 난민을 다시 집 밖으로 떠밀며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동시에 난민은 기술과 역량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다. 정착·기술경로를 넓히고 줄어든 인도적 지원을 회복해야 한다.

3 김용덕 함께만드는세상 이사장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재생에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릴 기회가 된다.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는 제도권·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적금융이 자립과 사회혁신조직 성장을 돕는 연결고리다.

4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소수자는 의료·주거·돌봄 같은 기본권에서조차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특히 이주민은 이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되면서 병원 접근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잊지 않는 기부가 필요하다.

5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산불·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복합재난 시대'에는 긴급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한 긴급구호를 넘어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그 힘은 단단한 공동체에서 나온다.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연결돼 자생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재생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6 방대국 다음세대재단 대표

대상이나 분야를 지정하는 기부보다 사람·조직·인프라를 키우는 기반조성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특정한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부 사례가 필요하다.

7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저출산과 인구감소 속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위기 양상은 다양해지고 취약성은 커지고 있다. 아동의 성장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기부와 이를 통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8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노인돌봄·세대통합은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투자 영역이다. 1인 노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 치매·돌봄·디지털 소외가 함께 커지지만, 제도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 지역 기반 안전망이 필요하며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세대 연결의 중심으로 볼 때 공동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9 윤세리 사단법인 온오프 이사장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아동과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사회문제의 피해자로 보고 정서적 돌봄을 포함한 '치유적 사법'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10 윤종선 부스리기사랑나눔회 대표

아동·청소년은 우리가 만든 사회에서 자라 결국 내가 노년에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수록 미래는 더 단단해진다. 다문화·소수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식개선과 장기적 통합 활동에는 꾸준한 기부가 필요하다.

11 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지역소멸은 단순 감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를 위협하며 경제·사회 붕괴의 악순환을 부른다. 마을공동체 회복과 노후주택 개선, 빈집활용 도시재생 같은 기반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 지원은 '존엄성 회복'의 핵심이다.

12 이상주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

기후재난은 취약국일수록 피해가 더 크다. 아동권 관점에서 기후적응, 재난 대비 교육, 기후위기로 인한 권리 침해 대응을 전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단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장기 회복을 함께 설계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13 이용기 굿피플 회장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중도입국 아동은 언어 장벽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강점인 '이중언어'를 자산으로 키우는 체계가 필요하다.

14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제도 밖 아동·청소년은 조기개입도 중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처럼 시설을 나오는 순간 지원이 끊기는 절벽이 더 큰 문제다. 지역 소멸도 단기간 사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관계·경제·문화 기반을 재생하는 중장기 기부가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키운다.

15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

기후위기와 분쟁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늘지만, 국제 구호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기부가 더 절실하다. 긴급 구호뿐 아니라 예방접종, 교육, 안전한 식수, 생계 회복 같은 기반 투자가 뒷받침돼 위기 국가와 강제이주민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16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한국 대표

기후재난 같은 범지구적 위기는 단기간 캠페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장기투자로 다뤄야 한다. 한국도 작지만 강한 국가로서 국제 연대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다문화·장애·소수자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17 이행희 사랑의달팽이 회장

국내 청각장애인은 걸로 드러나지 않

아 지원이 약한 편이다. 인공지능·수술과 재활로 음성언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장애 영역에 기부와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난청은 더 흔해지며, 특히 농어촌·지방일수록 고령층 비중이 높아 지역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

18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권리옹호 분야에 더 많은 기부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부금은 복지에 집중돼 있지만 소수자에게 빵을 나누는 것만큼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자원이 중요하다.

19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

재난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붕괴처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영역에 대한 투자 규모는 중요성에 비해 매우 작다. 위험이 빈번해지고 영향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부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 작은 자원으로 큰 효과를 내는 풀뿌리 기부에 기여해야 한다.

20 전미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문제는 조기 예방이 중요하며 생명존중교육 등 자살 예방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동시에 예기치 못한 분쟁과 재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도록 가장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는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1 정유진 함께하는사랑밭 대표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과 공공·민간이 연계한 예방적 지원체계가 시급하다. 소득 양극화 심화는 취약아동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준다. 조기 개입이 효과적인 집단인 만큼 국가·지역·민간이 함께 고령층 돌봄과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22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은 기본 건강·복지 서비스 접근이 낮다. 2026년에는 보호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 또 분쟁지역 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만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3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기후재난은 시민단체·기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결국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굿월스토어 같은 순환경제 플랫폼은 기부와 구매라는 생활 행동으로 탄소를 줄이고, 동시에 소외계층 일자리를 만들어 다층적 임팩트를 낸다.

24 조명한 월드비전 회장

사각지대 아동은 돌봄·정서·주거 등 기본 안전망에서 쉽게 누락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재난은 취약한 이웃에게 더 큰 피해를 남긴다. 이제는 긴급구호를 넘어 회복과 적응까지 이어지는 지속 투자, 더 빠른 대응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

25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교육 투자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특히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은 단순 학습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고 트라우마 이후 일상 회복을 돕는 생존의 고리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26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사각지대 아동·청소년과 다문화·소수자 집단은 '자립 기반이 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단기 지원을 넘어 개인의 삶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경로 설계형' 지원 모델이 효과적이며, 이는 자립·역량 강화·사회통합과도 맞닿아 있다.

27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기후대응은 생존 조건이 됐다. 동시에 한국은 저출생과 노동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배경 인구가 늘고 있다. 차별 없이 기반을 구축하도록 인식개선·정책 의제화·실질적 통합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8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장수사회로 접어들며 세대가 다양해졌지만, 세대 갈등은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돼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비용을 키운다. 또 기후재난은 잦아졌지만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은 각국 이해관계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해결책이 있음에도 실행이 늦어 약속한이 커지는 만큼 '협력과 이행'에 더 많은 기부가 필요하다.

29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1인 노인 가구 돌봄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커뮤니티 기반 돌봄 연대로 가능하다. 세대 간 이해와 상호작용을 넓히는 다양한 시도가 중요하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삶의 방식 전환과 예방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

30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가족돌봄아동과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본다. 돌봄 부담으로 성장 기회를 잃는 가족돌봄아동과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에게 생애주기별·가정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

이주민 지원의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바보의나눔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한국 사회에서 이주배경 인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8일 국내 이주배경인구를 처음으로 집계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인인 셈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이주배경 인구는 전년 대비 5.2% 늘어나 총인구 증가율(0.1%)의 50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주민 지원 체계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주민 지원 정책은 등록된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단기 체류자는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돼 있다. 이로 인해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귀국도 생존도 어려운 사람들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씨는 같은 국적의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다. 상태가 위중해 귀국도 어려웠다. 외국인 신분인 아이에게 적용되는 병원비는 내국인의 최대 10배에 달했다. 아이를 돌보느라 가구 소득은 절반으로 줄었고, 비자가 만료되면서 아이는 미등록 아동이 됐다. 매달 수백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정부의



이주민 지원단체 올프렌즈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 참가자들. [사진 바보의나눔]

장애인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민간에서 마련되고 있다.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곳은 중간지원조직인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다. 바보의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에 따라 2011년 이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공모배분사

업에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사업’ 분야를 공식적으로 신설해 현장의 소규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함께한 단체는 총 144곳, 누적 지원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단체당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선 바보의나눔 나눔사업파트장은 “이주배경 장애인, 미등록 아동, 무국적 위기 여성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 돕고 있다”고 말했다.

바보의나눔이 특히 주목한 분야 중 하나는 ‘의료 사각지대’다.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올프렌즈 등 현장 단체와 협력해 무료 진료소와 이동 클리닉 운영을 지원해왔다. 만성질환자 관리와 건강검진, 보건 교육, 예방접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뒷받침한다. 임신·출산을 앞둔 이주배경 여성 역시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금자 성모의집 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주민은 자연분만만 해도 약 500만원, 응급 수술을 하면 1000만원까지도 든다”며 “바보의나눔 배분사업을 통해 분만 전 검사비와 출산 의료비, 아기의 분유·물티슈·기저귀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민간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사각지대는 이주배경 아동들이 청년기로 접어드는 순간에도 드러난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은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체류 자격을 확보해야 하는

벽에 부딪힌다. 유학생 비자(D-2)나 인도적 체류 허가(G-1-6)를 통해 체류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일상 곳곳에서 어려움이 나타난다. 내국인보다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며, 비자 조건상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다. 김다영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는 “학교와 지자체,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학금은 대상을 국내 국적자로 한정해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마땅한 지원처를 찾기 어렵다”며 “2025년 한 해 바보의나눔 지원금으로 5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한 학기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바보의나눔과 현장 단체들은 단기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장애 이주민 지원사업을 펼치온 이주민과함께는 지난 9월 이주 인권 단체와 장애인권 단체, 법률지원 단체들과 함께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공론화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진숙 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어떤 이유도 배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바보의나눔은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제공한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동복지연구소가 학대피해장애아동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서울·인천·대전·부산에 이어 수원과 의정부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학대와 장애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2년부터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사업’을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시작한 3차년도 사업의 일환이다.

1차년도에는 심터 운영·돌봄 표준 마련을 위한 매뉴얼과 종사자 교육 교재 10종을 개발했다. 2차년도에는 전국 26개 기관, 9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으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드림폴 교육센터’를 개설해 비대면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3차년도에는 실습 중심 교육과 사례 기반 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 5개 과목을 추가 개설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장애와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아동에게는 전문성과 세심함을 갖춘 돌봄이 필수”라며 “교육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전문 돌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기부자들이 유산기부를 망설이는 세 가지 이유

초록우산 등 자선단체들이 이끄는 ‘한국형 레거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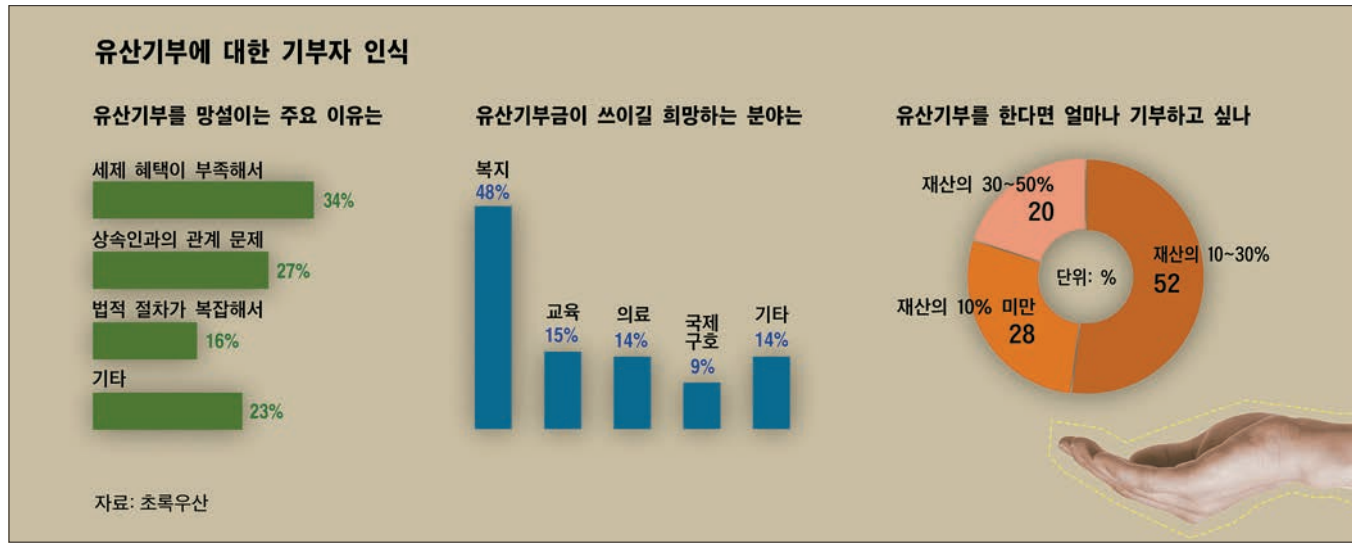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초록우산이 지난달 기관의 중·고액 후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산기부에 대한 기부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는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 유산기부액은 전체 기부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유산기부가 전체 기부금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것과 대조적이다.

기부자들은 왜 섣뜻 유산기부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걸까. 이번 조사에서 유산기부를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세제 혜택의 부족(34%) ▶상속인과의 관계 악화 우려(27%) ▶복잡한 법적 절차(16%) 등이 꼽혔다. 정수영 초록우산 임팩트기금본부장은 “기부자들이 유산기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환경이 기부자의 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부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유산기부의 가장 큰 장벽은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정 본부장은 “현장에서 기부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유산기부를 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것”이라며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가족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정을 망설이게 된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산기부를 해도 세금이 바로 줄지 않는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재산 금액(상속세 과세액)에서 기부한 금액을 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부자가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가 거론된다.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과세가액 조정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자체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구조다. 영국의 ‘레거시 10’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제도로, 영국에서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유산기부가 크게 늘었다. 2024년 기준 약 45억 파운드(약 8조6000억원) 규모로 주요 자선단체 모금액의 약 30%에 이른다.

초록우산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등 주요 단체들은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사

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안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사회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산을 기부하면 세금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명확한 신호를 준다면 유산기부 활성화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족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상속인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다. 실제로 유산기부 의지는 있으나 자녀·형제 등 가족과의 갈등,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걱정해 결정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후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될 경우 기부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정 본부장은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보호하면서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가족 간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재산이 더 큰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유산기부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기부신탁 등 신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자인 신탁사와 공익법인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재산을 관리·집행하면 재산 귀속을 둘러싼 직접적인 충돌을 완화하고, 기부자의 의사와 가족의 최소한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유산기부 절차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복잡한 절차 역시 유산기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힌다. 유언장 작성과 공증,

상속세 신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정리 등 여러 절차가 한꺼번에 얹혀 있기 때문이다. 가족 관계나 건강 상태, 자산 구조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고려할 내용도 달라 유산기부는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초록우산과 같은 공익법인에서는 법률·세무·금융 전문가와 협력해 상속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유산기부의 부담을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는 구조가 갖춰지면 유산기부는 충분히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초록우산 설문에서는 유산기부의 잠재력도 확인됐다. 유산기부를 고려하는 응답자 중 52%는 “재산의 10~30%를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0~50%라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유산기부가 활성화된 미국과 영국에서 상징적 기준으로 여겨지는 ‘유산의 10% 환원’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치다. 기부금 사용처로는 국내 복지(48%)와 교육(15%)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의지도 드러났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유산기부에 세제 혜택을 도입할 때 단기적인 세수 감소만을 볼 것이 아니라, 기부확대로 사회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과 주식, 보험, 부동산 등 기부 대상 자산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포용할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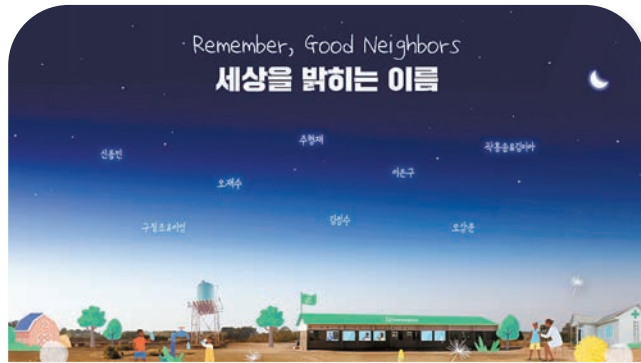
최지은 더버터 기자



난민 30만 명을 위한
‘마지막 병원’을 지켜주세요



케냐 카쿠마 난민캠프에는 분쟁을 피해 온 30만 명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아루사이트 병원은 이곳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지만,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삭감으로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앰불런스 운행은 줄었고 약품도 빠르게 소진돼 갑니다. 병원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30만 난민이 마지막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는 법,
추모기부



‘리멤버 굿네이버스’는 고인이 된 소중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추모기부 캠페인입니다. 다. 조의금, 유산의 일부 등 소액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부모님·친구·반려동물 등 오래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이름으로 나눔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나라를 위한 호국영웅의
희생에 보답할 때입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온 나라를 집어삼킨 시절, 17세 박준석(가명)씨는 입대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소년은 어느덧 90대가 됐습니다. 기초연금과 보훈 지원금을 받아도 약값과 병원비,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46.3%가 저소득층입니다. 이들의 희생에 보답할 때입니다. ‘무궁화 선물함’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기부하세요



2025 파이워크

오늘(18일)부터 31일까지 더버터와 국내 주요 비영리단체가 함께하는 ‘2025 파이워크(Pie Week)’가 진행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파이워크’는 민간 주도의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입니다. 연말에 소중한 사람들과 파이 한 조각을 나누듯, 일상에서 가볍게 기부에 참여하면서 나눔이 주는 달콤함과 따뜻함을 경험해 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큰 금액이 아니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를 제안합니다.

2025 파이워크에는 총 23개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파이워크에 12곳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캠페인 규모가 일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국제구조위원회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부스레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얼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초록우산 ▶컨선월드와이드 ▶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캠페션 ▶한국해비타트 ▶함께일하는재단 ▶함께하는사랑발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함께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부를 일상적이고 즐거운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로 대표되는 소비 중심의 연말 시즌 이후, 그다음 화요일을 ‘가빙투스데이(Giving Tuesday)’로 정해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영국의 ‘레드노즈 데이(Red Nose Day)’ 역시 코미디와 캠페인을 결합해 기부를 하나의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버터와 파이워크 참여 단체들은 지난 1년 동안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더기버스50(The Givers 50)’은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일상의 기부자들을 조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 단체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50명을 선발하고, 이들의 나눔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더 많은 사람이 기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더버터 지면과 파이워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한부모가정·장애인·호국영웅·자립준비청년·난민 등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부하고 싶은 단체와 분야가 적힌 박스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캠페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기부는 이웃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말에 소중한 이들과 따뜻한 파이를 나누는 마음으로 기부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시원·문일유·최지은·박선진·더버터 기자



파이워크 페이지 바로가기



매일 3만3000명의
어린이가 ‘신부’가 됩니다



3초마다 한 명의 여아가 결혼으로 내몰립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생계가 무너진 가정에서 아이들은 자참금을 이유로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꿈꿔야 할 나이에 폭력과 두려움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 유니세프는 매매혼 예방부터 구호·보호·회복·자립까지 아이들이 안전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함께합니다.



메마른 케냐 땅에
희망의 고구마를 보내주세요



배고픔 속에서 성장을 멈추고, 꿈을 잃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케냐의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메마른 땅에서도 튼튼하게 자라는 주황고구마 모종을 보냅니다. 여러 손길에서 작은 씨앗 하나 자라,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의 희망으로 피어납니다. 미래를 키워가는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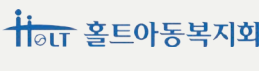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집을 고쳐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청년입니다. 전세금이 고스란히 빚이 된 상황. 수천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핀 집에서 날마다 버텨냅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청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다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한부모 엄마의
자립을 돕는 솔루션



아이와의 만남이 축복이 아닌 외로움 생존의 시간이 되어버린 엄마들이 있습니다. 국내 149만 명의 한부모가 오늘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솔루션으로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엄마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변화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추위를 피할 곳 없는
아이들에게 온기주세요



매서운 겨울이 돌아왔던 난민촌에는 담요와 난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입던 옷과 쓰레기까지 태우며 추위를 버립니다. 매년과 추위에 취약한 아이들은 연기를 들어마셔 폐렴에 걸리고, 고열과 기침에 시달립니다. 위태로운 하루를 보내는 난민들이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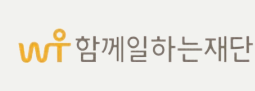
“제 결혼을
축하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른들은 축하한다고 하는데, 저는 친구들과 더 놀고 싶어요. 공부해서 선생님도 되고 싶어요.” 전 세계 수많은 소녀가 자신보다 나이가 두세 배 많은 남편과 결혼해 출산을 강요받습니다. 아이들이 초혼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플랜과 함께 만들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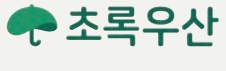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건
‘일할 기회’입니다



만 18세에 보호사실을 떠난 민준(가명). 삶을 홀로 꾸려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지속가능한 일자리’였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IT 직무훈련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한 민준이는 게임 그래픽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단은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주세요.



외로운 아이들의
따뜻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요.” “친구들처럼 음식을 하고 싶어요.” 흥겨운 캐럴이 울리는 연말에도 설렘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어온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올해도 전국 사업기관을 통해 아이들의 소원을 받아 선물을 전달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산타가 되어주세요.



‘소녀가 아이를 낳는 마을’의
내일을 바꿔주세요



도로도 학교도 병원도 없는 필리핀 복민다나오섬에서는 가난과 조혼이 대물림됩니다. 아이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한국캠페션은 교육과 보건, 영양, 정서 지원으로 아이들을 돕습니다. 한 명의 후원자가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번 연말엔 사랑의 기적에 함께해주세요.



항상 환아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주세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진 아이들. 항상 환아들은 가려움과 통증에 발작을 이 루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보습 관리와 재활, 심리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비급여로 부담이 큼니다. 의료비, 화상 약품, 심리·정서 지원으로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편안한 내일을 위해 관심을 나눠주세요.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나무를 지켜라’



오랜 가뭄으로 우물은 말라가고, 아이들은 더위를 피할 그늘조차 잃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로 가나의 보코마울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기후변화에 적응력 있는 묘목 구매, 주민들의 나무 돌봄 활동 지원, 인식개선 교육과 옹호 활동에 사용됩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되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에 동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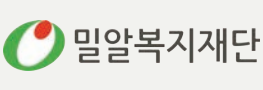
홀로 선 열여덟 청년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낯선 세상에서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익숙한 보금자리를 떠나 스스로 삶을 꾸려야 합니다. 매년 약 2500명이 사회로 나설지만, 주가와 생계, 외로움이라는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이들이 희망으로 내일을 그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보호대상 장애아동을
‘토닥토닥’ 안아주세요



학대와 방임, 가족 해체로 혼자 남겨진 보호대상 아동은 지난 5년간 1만3878명에 이릅니다. 이중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의료·주거·심리·학습 지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작은 기부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주민들



이주민들에게는 겨울 추위만큼 병원의 문턱이 두렵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은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는 합니다. 입산부는 필수 산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최소한의 예방접종에서 배제됩니다. 이주민들이 이연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학대피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세요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외로운 날입니다. 친구들의 선물 자랑에 웃지 못하고, 낯은 웃으로 긴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부스레기사랑나눔회는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크리스마스 선물과 겨울 용품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기적을 선물해 주세요.



청각장애 아이들과
세상을 다시 이어주세요



청력을 잃은 한 아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고가의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 하고, 언어재활치료와 외부장치 교체, 정기 검진도 필요합니다. 이 여정에는 1억 가까운 치료비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청각장애 아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결식위기에 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를



국내에는 약 27만 명의 결식위기가동이 있습니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은 마음마저 지쳐 갑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여경태 셰프와 함께 하는 ‘할머니의 레시피’ 캠페인으로 저소득 가정에 주 2회 영양 가득한 도시락과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특식을 전달합니다. 따뜻한 한 끼로 아이들의 일상에 온기를 더해주세요.



빛나는 내일을 위한 도전,
여성가장 자립사업 ‘다나내일’



한부모여성가장의 월평균 소득은 250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돌봄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도 반복됩니다. 얼매나눔재단은 네일아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여성가장이 기술을 익히고, 취업과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여성가장의 자립을 응원해 주세요.



아이의 하루를 밝히는
불빛을 선물하세요



칠복같이 어두운 밤, 비상용 텐트에서 잠드는 아이들은 화장실 한번 가기가 두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과 재난으로 평범한 일상을 잃은 아이들은 따뜻한 빛조차 마음껏 누릴 수 없습니다. 월드비전은 이 아이들에게 조명등을 전달해 안전한 밤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에 작은 불빛을 켜주세요.



청소년 스포츠 유망주의
가능성을 키워주세요



스포츠에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은 배구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에서 청소년 유망주를 발굴해 전문 훈련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재력을 지닌 유소년들이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작은 기부가 모이면 한 명의 유망주를 더 큰 무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위기브 고향사랑기부

13만 5천원 환급 효과!

스타벅스 5천원 상품권 증정

“이재명 대통령의 K-콘텐츠 공약, 성수동에서 실현할 수 있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수풀이 우거져 있던 자투리땅이 어떻게 연 400만명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을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이야기다. 서울숲 진입로에 100여 개의 컨테이너로 조성한 독특한 공간으로, 전시·행사·팝업스토어가 1년 내내 열린다.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창업가들의 업무공간, 청소년과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한 교육공간,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달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안지훈(46)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을 만났다. “성동구는 최근 10년 새 서울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겪은 지역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그런 혁신을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는 10년 전 성동에 혁신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한 2014년부터 4년간 ‘구정 기획단장’을 맡아 소위 어공(어쩌다 공무원) 생활을 했다.

“당시 성동은 전체적으로 정체돼 있었어요. 구청 분위기도 비슷했죠. 지방행정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역동적일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안 하려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살아있어야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해진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일을 벌였습니다.”

성동구청에 근무하면서 그는 성수도 시재생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도 그때 기획한 프로젝트다. 대기업이 양쪽으로 땅을 사는 바람에 애매하게 끼어 있던 땅.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늪지대 같은 땅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다.

“영국에 ‘박스 파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컨테이너로 만든 팝업 복합문화공간으로, 5년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을 살리는 콘셉트였죠. 이걸 벤치마킹해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설계했습니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비즈니스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공’ 생활을 끝낸 뒤에는 구청 밖에서 혁신을 이어가는 중이다. 행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학문적으로 구체화하고 싶어서 8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사회적가치·소셜벤처의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소셜혁신연구소를 설립해 현장에서 직접 혁신을 실험하고 있다.

“성동구는 시즌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즌1’은 혁신가들이 만들어낸 자생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은 “성수동은 대통령의 K-콘텐츠 공약을 실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적인 생태계입니다. ‘시즌2’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등 행정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형성된 생태계입니다. 성동에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건 행정의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상향했

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좋은 자본들이 성동에 들어와 함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었죠. 지금 성동은 ‘시즌3’입니다. SM·크래프톤·무신사 등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 공존하는 모습이지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K-콘텐츠 공약을 실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동구 성수동”이라고 했다. 성수동은 소셜벤처·사회적기업이 모여 있는 ‘혁신의 아이콘’이자 다양한 콘텐츠가 집약된 ‘K-콘텐츠의 성지’로 유튜브에 이전시만 200여 개가 들어와 있다.

문제는 성수동에 성수동이 없다는 것이다. 성수1가1동, 1가2동, 2가1동, 2가3동, 송정동 등 5개의 행정동을 성수동이라고 통칭할 뿐, 성수동이라는 법정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수동을 하나의 ‘대동’으로 만들어 성수만의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콘텐츠,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확산해야 합니다.”

올해 안 이사장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지속가능센터장을 새롭게 맡았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떠올리며 ‘행복의 토대’라는 책도 펴냈다. 소득 수준을 가리키는 ‘물질 토대’와 사회적 감수성을 가리키는 ‘가치 토대’. 이 두 가지가 행복의 중요한 축이라는 내용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 감수성이 낮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책의 핵심 메시지다.

“지방정부의 혁신도 이런 방향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격차’를 줄이는 것.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것. 성동구의 ‘시즌4’도 이런 모습 이길 바랍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혼합금융으로 동남아 기후 문제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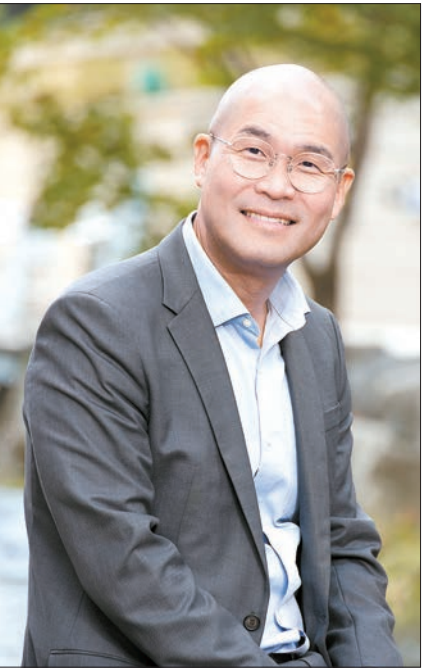
권기정 NHARP 대표 인터뷰

자본은 시장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기후테크 영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2억 달러(약 2900억원) 규모의 혼합금융이 가동을 시작한다.

유엔 산하의 녹색기후기금(GCF)이 조성한 기후테크펀드(CTF)는 전체 자금의 약 40%를 GCF가 우선순위로 부담하는 구조다. 공적자금이 리스크를 흡수해 민간 자금을 모으는 촉매 역할을 한다. 연 8% 우선수익률을 전제로 펀드가 운용되는 11년간 온실가스 164만t 감축과 230만 명 수혜를 목표로 ‘수익’과 ‘임팩트’를 동시에 추구한다. 지난 7월 NH투자증권은 아시아 증권사 최초로 CTF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NH투자증권의 싱가포르 현지법인 NH애플솔루션파트너스(이하 NHARP)는 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함께 맡는다. 최근 투자자(LP) 모집에 나선 권기정 NHARP 대표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기존 펀드와의 차별점.

“CTF는 혼합금융의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형태로 설계됐다. 공적 자금을 촉매성 자본으로 두고, 민간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미국·EU 등 선진국에서 이미 사업 성과가 검증된 기후기술 기업에 집행한다. 이들 기업이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5개국에 진출해 기후기술을 전파하도록 지원한다. 자본은 선진국으로 투입되지만, 임팩트는 동남아에



권기정 NH애플솔루션파트너스 대표. 이경호 기자

서 실현되는 모델이다.”

-어떤 기관이 참여하나.

“NH투자증권·NHARP·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함께 진행한다. 투자 기업 발굴과 심사, 사업 개발을 NH투자증권 탄소금융부와 NHARP가 맡는다.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과 법률 지원 등 액셀러레이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GGGI는 현지 파트너 연결, 정부 인허가 등 로컬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투자자 관점에서 이점은.

“민간 LP에 원금 회수와 연 8% 우선 수익 분배를 가장 우선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GCF가 먼저 부담해 민간 투자자의 하방 위험을 최소화한 구조라고 보면 된다. 운용사(GP)인 NHARP는

최대 2만 달러, NH농협그룹도 LP로 최소 20만 달러를 투자해 책임 운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떤 분야에 집중하나.

“크게 ▶신재생에너지 ▶송·배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저배출 교통수단 ▶주거·산업 효율화 기술 ▶농업 기술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등 7개 영역이다. 이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저배출 교통수단, 농업, 폐기물 분야를 핵심축으로 본다. 투자는 매출 100억원대의 초기 기업부터 기업 가치 5000억원 수준의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주요 타깃은 이미 흑자를 내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기업이다.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투자사와 GCF가 원하는 성과가 다를 것 같은데.

“일반 금융사는 여전히 임팩트보다는 수익에 관심이 많다. ‘기후 기술은 돈이 안 된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이번 펀드를 통해 이런 편견을 깨는 게 목표다. 기후 임팩트와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보는 금융사들이 임팩트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시장이 바뀐다. 패밀리오피스와 ESG 예산을 가진 국내 금융기관, 개도국 금융기관도 중요한 타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금융이 유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펀드를 마중물로 삼아 기후 임팩트의 파이를 키워가고 싶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SPC, 일본·중국으로 간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소셜섹터에 부는 ‘한류’

글로벌 소셜섹터에 ‘한국 사회적가치 측정·보상 모델’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SK그룹과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개발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가 국내를 넘어 일본과 중국에서 사회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다. SPC는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등이 만든 사회적가치를 화폐로 측정하고, 이들이 낸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10년간 SK그룹은 468개 기업에 약 715억원을 지급했고, 이를 통해 창출된 사회적가치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한다.

SPC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는 일본이다. 지난 3년간 SPC를 모델로 한 ‘아웃컴펀드 for IMM’을 론칭해 일본 현지 상황에 맞는 임팩트 측정과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설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SK그룹이 설립한 공익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일본 펀드레이징협회(JFRA)가 공동으로 주도했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에는 JFRA가 운영을 맡는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주요 파트너로 함께할 예정이다.

아웃컴펀드는 SPC를 그대로 벤치마킹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과 SK그룹이 하던 성과 측정과 관리 지원 업무를 JFRA와 협력해 수행하고, 참여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기준 등을 일본 현지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 유미현 사회적가치연구원 SPC 확산팀장은 “SPC의 목표는 사회적가치 추구 조직이 스스로 성과 목표를 세

우고 이를 점검할 지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한부모 가정 주거지원과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리브이퀄리티허브(LiveQuality HUB)’ ▶파도림 피해 학생을 돕는 ‘스텐바이’ ▶병원 직원을 커뮤니티 간호사로 키워내는 ‘CNC’ ▶발달장애인의 적성 맞춤형 일자리 찾기를 돕는 ‘키즈키’ 등이 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받았다. 우오 마사타카 JFRA 회장은 “SK그룹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도움으로 임팩트 평가와 투자 분야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 4월 일본 외무성은 일본국제협력단(JICA·자이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정책 집행 방향성을 담은 개요 자료에 SPC의 핵심 작동 원리인 성과 기반금융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지속적인 문의가 오면서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활동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 특성상 이런 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은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SPC를 찾는 것은 지난 10년간 SK그룹이 진행해온 사회적가치 평가·측정·보상의 경험이 글로벌 단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일본과 중국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배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 측정 방식을 다시 국내 SPC현장에 도입해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지원 넘어 협업으로… ‘H-온드림’이 키운 임팩트 생태계 13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은 대부분 비슷하다. 기술이 부족하거나 창업가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초기 투자를 유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자본과 정보의 연결 고리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2025 임팩트 스타트업 데이’ 현장에서도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임팩트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나 기술만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단계마다 필요한 자본과 정보를 적시에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에너지 전환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업일수록 혼자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이 간극을 메우는 방식으로 지난 13년간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사업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이하 H-온드림)를 운영해 왔다. 개별 기업을 키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펠로들 사이의 이니셔티브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H-온드림을 거쳐 간 스타트업은 300곳이 넘는다. 펠로 기업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원이 끝나면, 협업이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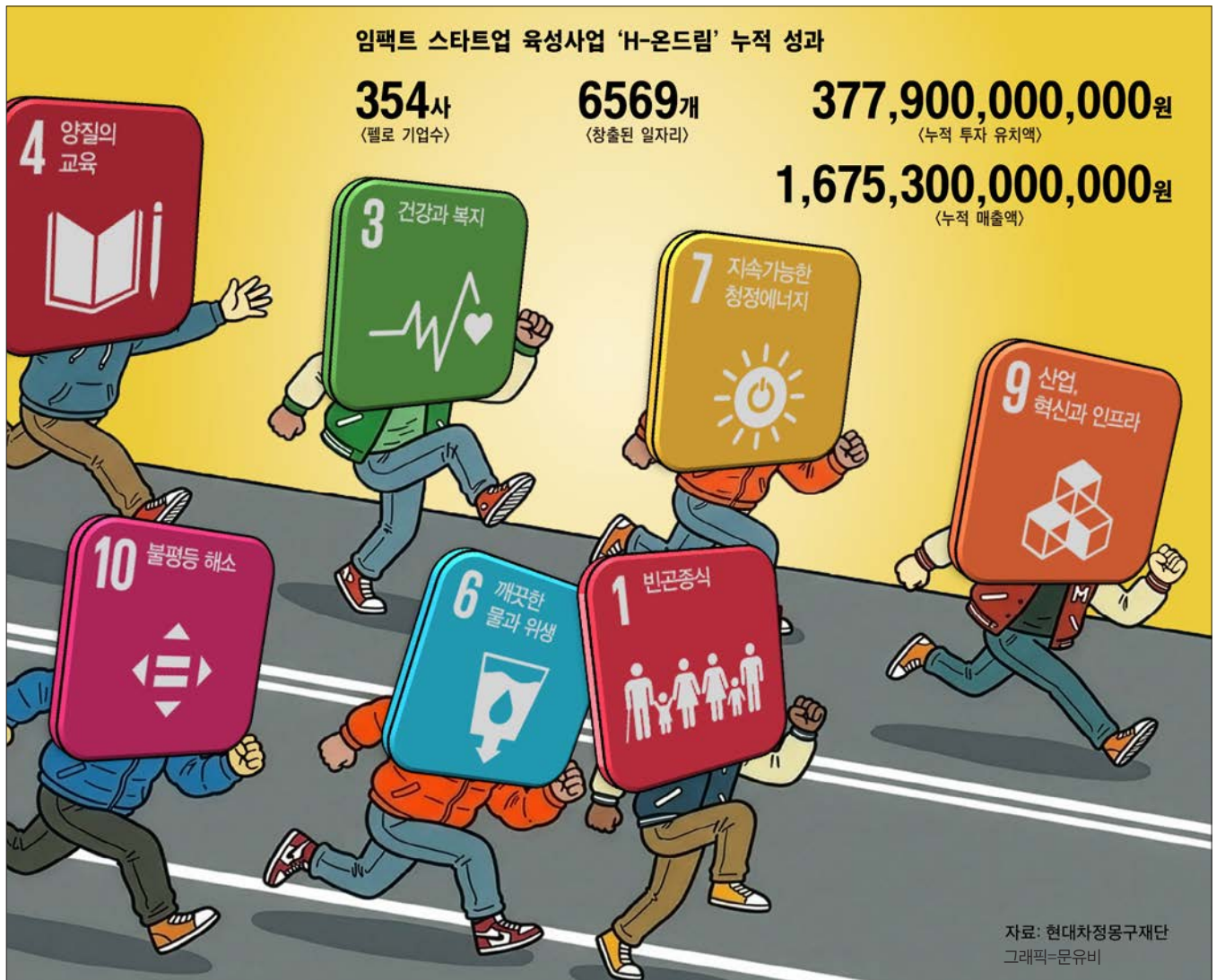
임팩트 생태계에서 재단의 역할은 시스템 빌더에 가깝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R&D, 사업화, 확장, 글로벌 경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이 필요하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자본과 네트워크도 성격이 다르다.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시장과 투자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임팩트 스타트업 데이의 패널토론에서 정운환 카카오 실장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은 정보 부족”이라며 “해의 진출이나 대기업 협업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 정보가 축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이 공유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온드림은 이 문제를 지원금 확대를 넘어 플랫폼 구축으로 풀어왔다. 자본·네트워크·기업가정신 등 스타트업의 성장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한 구조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펠로 기업 간 업무협약(MOU) 체결 사례도 잇따른다. 누적 펠로 기업은 354곳. 77%에 이르는 생존율 덕분에 가능한 구조다. 지난해 H-온드림에 참여한 어글리랩(12기)은 한 기수 앞서 펠로기업이 된 에코넥트(11기)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선별 역량을 가진 어글리랩과 폐비닐 기반 리사이클 소재를 개발·제조하는 에코넥트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기업 폐기물을 다시 원료와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대기업 물류센터 폐비닐 선순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가정용 수거 봉투까지 재활용 소재로 전환하면서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정보 접근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트파인더즈(12기)는 장애아동 대상 AR 재활 게임 애플리케이션(12기)과 장애인을 위한 AI·에이블테크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B2G 사업과 정부 R&D를 공동 추진하고, 각자의 전문 영역인 접근성 기술과 재활 솔루션을 결합한 서비스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업 간 협업이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은 “H-온드림은 협업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신 기업들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맥락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협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기업이 아니라 ‘필요한 기업’을 키운다. H-온드림의 또 다른 특징은 임팩트 스타트업의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임팩트 스타트업을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시급성과 중대성이 높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단은 이 기준을 선발과 지원 전반에 적용해 왔다. 단기 성과보다 문제 해결의 지속성, 기업가정신, 확장 가능성

을 중시하는 이유다. 재단 설립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강조해 온 장기 투자와 시스템 구축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H-온드림 운영 방식은 현대차그룹이 1990년대 말부터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을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장기 투자하고, 40년 넘게 한국 양공을 지원해 세계 최강으로 키운 전략과 유사하다.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생태계 전반의 성숙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올해로 13년째.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H-온드림을 통해 지금까지 창출된 일자리는 6569개. 선발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1조6753억원에 이른다. 이들 기업이 유치한 투자 규모는 3779억원이다.

올해 H-온드림 13기에는 20곳 선발에 812개 기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40대1을 넘는다. 김정태 MYSC 대표는 “매년 선발하는 지원 사업에 800곳이 넘는 스타트업이 지원했다는 건 이미 생

태계를 이뤘다고 봐야 한다”며 “재단의 꾸준한 지원과 신뢰로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펠로 기업 상당수는 한 번의 실패나 방향 전환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재단은 방향을 지시하기보다는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다음 선택지를 제공했다. 특히 ‘펠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만난다는 점도 강점이다. 윤석원 AI웍스 대표는 “H-온드림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중 하나가 네트워킹 기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료 펠로들과의 교류하면서 사업적 인사이트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은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단기 성과보다 구조와 기반을 남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2025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현장.

[사진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무에서 유를 창조한 ‘K-기업가정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이어간다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

전후(戰後)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이룬 ‘한강의 기적’의 중심에는 ‘K-기업가정신’이 있다. K-기업가정신은 단순한 기업 경영을 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보국의 애국적 기업가정신이다. K-기업가는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에 발맞춰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토대를 구축한 시스템 빌더였다.

아산 정주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척자형 기업가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국가 산업의 대동맥을 열었고, 한미 조선헌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가능케 한 K-조선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오늘날 세계 3위 수준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재단 설립자인 정몽구 명예회장은 선대가 이룩한 산업시스템을 품질과 R&D 중심 경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시켰다. 특히 구조적 혁신을 통해 ‘숫물에서 자동차까지’라는 새로운 표준

을 제시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불확실함이 클수록 자신을 믿고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미래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창의적 시도와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립자의 기업가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청년 창업가와 임팩트 스타트업의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이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를 육성하는 게 재단의 지향점이다.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처럼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청년 기업가들이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교육, 멘토링, 투자 연계, 재정 지

원,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현대가 도전·창조·혁신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국가의 기간산업을 일으켰다면, 재단의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사업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오늘날 청년 기업가들이 기후변화·양극화·교육격차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하는 장기적 전략이다.

이들의 성공은 개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선발된 총

354명의 정몽구 펠로는 일자리 6569개를 창출했고, 누적 매출 1조6753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H-온드림은 지난날 국가의 산업시스템을 창조했던 K-기업가정신의 위대한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형 헤리티지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재단은 20세기 무에서 유를 창조한 K-기업가정신의 소중한 헤리티지가 21세기에도 청년들에게 이어지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청년 기업가들이 대한민국과 인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연구자’를 ‘창업가’로… 기후테크, 산업이 되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그린 소사이어티’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국가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19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4.96%)다. 미국(3.4%)·일본(3.4%)·독일(3.1%)보다 높다. 연구 인력과 논문·특허 생산량도 세계 상위권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 도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OECD는 “한국 혁신정책 리뷰”를 통해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강력하지만, 혁신 기술이 산업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실 기술의 사업화 경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진단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2023년 11월 기후기술 연구자들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린 소사이어티(Green Society)’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업가형 연구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컨설팅·실증·투자유치·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과 달리 ‘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해 기후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목표다.

재단은 2029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해 18개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년마다 9팀을 선발해 기술 고도화, 기술 사업화, 투자 유치 등 매년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연속 지원한다. 기술 개발 이후 연구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을 하나의 트랙으로 엮은 것이 특징이다.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은 “한국의 R&D 생태계에서 기초·응용 연구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담당하고 상용화는 기업과 벤처캐피털이 맡으면서 분절돼 있다”며 “민·관·학 관계자들을 연결해 실험실의 연구 결과가 산업 현장에 적용되도록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업가형 연구자를 육성한다

재단은 그린 소사이어티에 선발된 9팀을 기후·생태·자원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후 부문에는 ▶에코하이드로팀(유성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휴젝트(성태현 CTO) ▶한국그리드포밍(강지성 대표) ▶선시프트(박철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네 곳이 선정됐다. 생태 부문은 ▶코드오브네이처(박재홍 대표) ▶이쓰리(이우균 고려대 교수) ▶블루카본(황동수 포스텍 교수), 자원 부문에서는 ▶GFT(정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에코리튬(정다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로 2년째. 사업착수 시점과 비교하면 성과는 뚜렷하다. 선발팀의 논문 게재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25건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고, 특허 등록 건수도 48건으로 같은 기간 45% 늘었다. 상용화가 가기 위한 기술수요처와 시제품 제작 협의도 29건 이뤄졌다.

팀 구성도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기존 총 48명의 연구원으로 시작된 인원은 93명으로 대폭 늘었다. 연구과제를 시작한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도 42명이나 된다. 연구 성과를 넘어 기후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린 소사이어티에 참여하고 있는 정다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구가 잘 풀리면 ‘이 기술이 사회에 쓰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며 “다만 사업화는 늘 막연한 영역으로 남았는데, 그린 소사이어티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을 실제 봐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 중이다. 리튬은 이차전지 생산의 핵심 요소로 전기차 산업의 확장 속도를 결정짓는 변수 중 하나다. 기존 리튬 채굴 방식은 광산에서 채굴하거나 대규모 염수를 증발시켜야 했다. 물과 전기 사용량이 많고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그린 소사이어티 C-Tech Fair’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진 현대차 정몽구 재단]

생태환경도 훼손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상당하다.

그는 흡작 소재를 활용해 염수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DLE(Direct Lithium Extraction) 방식의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다운 연구원은 “손바닥 크기의 모듈로 시작한 연구가 하루 1.5t의 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기술 분야에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감히 할 수 없지만 약 60~70% 완성도로 기술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정다운 연구원은 그린 소사이어티 졸업을 기점으로 2027년 1월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 부문의 또 다른 연구자인 강지성 한국그리드포밍 대표는 전력망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리드포밍 태양광 인버터’를 개발하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전력망의 주파수와 전압의 흔들림이 잦다. 기존 인버터는 전력망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형 구조라 이러

한 변동을 버티지 못한다.

강 대표가 개발하는 인버터는 스스로 전압과 주파수를 만들어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능동형 장치로, 태양광 발전소 자체가 하나의 ‘전력 안정화 설비’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그는 “국내에서 아직 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하면 시장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그 시점에 기술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그린 소사이어티가 특별한 점은 연구자들에게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른바 ‘조건 없는 투자’다.

한국의 R&D 구조는 대체로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예상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중간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해 연구비가 줄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기술의 원래 잠재력보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상정하게 된다. 혁신 기술이 출발부터 제한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7일 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보고회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것이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점”이라며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 소사이어티의 초점도 ‘연구자가 어디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연구자들이 시장과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패해도 그 위험을 떠안아줄 ‘완충 지대’를 만들어 기술 잠재력의 최대치를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묶이지 않고, 국가 연구기관·대학·기업·투자자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그린 소사이어티 C-Tech Fair’에서 홍성진 스파크랩 전무는 “기후테크는 빠르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분야”라며 “초기에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믿고 투자하는 민간재단의 자금이 ‘밀거름 자른’ 역할을 한다” 말했다. 이날 토크세션에 참여한 정성훈 LS일렉트릭 부장은 “대기업도 리스크가 큰 초기 기술에는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며 “이러한 위험 구간을 매워주는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가 향후 CVC 협력과 투자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했다.

국내 첫 기후테크 ‘민·관·학 통합지원’ 모델

그린 소사이어티의 실험은 재단의 지원사업을 넘어 기후테크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그린 소사이어티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진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장은 “기후기술 연구성과를 사회적으로 실현해 시스템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게 목표”라며 “논문과 특허에서 끝나는 기후테크가 아니라 실험 단계(TRL3)에 있는 기술을 실용화 단계(TRL7)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K-기후테크 혁신 기업가’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협약을 맺고 국가녹색기술연구원, 고려대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와 함께 국내 최초의 기후테크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정 위원장을 포함해 33명의 기술·투자·비즈니스·정책 전문가들이 연구팀을 2년간 밀착 지원했다.

민·관·학 협력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고려대가 담당한 사업화 컨설팅이다. 컨설팅에는 기업가정신 교육부터 비즈니스모델 정립, 사업성 고도화, 글로벌 진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사업화를 위한 모든 과정이 포함됐다. 박재홍 고려대 첨단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연구자는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의 운명을 바꾸는 건 연결”이라며 “기후테크가 실험실에서 나와 산업 현장에 구현되는 단계마다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일상을 바꾸는 기술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차년도에 접어드는 참여팀들은 초기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시장에 기술을 적용하는 구체적 설계 단계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기관과의 협력도 본격화된다. 재단은 미국의 에너지정책 싱크탱크 RMI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기술 검증에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 시험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은 “3차년도는 연구자에게 가장 힘들면서도 값진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연구자가 기업가적 역량을 갖추고 시장과 사회를 향해 도전하기 시작한 점”이라며 “이 모델이 다른 공익재단에도 새로운 기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일호 더버터 기자